

# U대회 경기장서 생활체육 즐겨볼까



새벽 5시30분~9시30분  
오후 6시~밤 10시30분까지

## 광주시, 국제양궁장·진월국제테니스장 시민 개방

시민들이 이용가능한 광주U대회 주요 경기장들이 개방된다.  
광주시는 10월 2015광주세계U대회 경기 시설인 광주국제양궁장과 진월국제테니스장을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남부대국제수영장을 지난 8월 개방한 데 이어, 추가로 이달부터 광주시체육회와 광주시생활체육회가 각각 위탁 관리하고 있는 광주국제양궁장, 광주시생활체육회를 개방한다.  
시민들은 양궁장의 경우 양궁 훈련시간을 제외한 새벽 5시30분부터 9시30분, 오후 6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경기 시설과 잔디구장을 사용할 수 있다.  
테니스장은 메인 코트와 소수 코트를

제외한 서브 코트 14개 면과 주변 시설이 테니스 동호회원 등 시민에게 오전 6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개방된다.  
시설 개방과 대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경기장 담당자(광주국제양궁장 062-604-2611, 진월국제테니스장 062-717-7361)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는 경기 시설 개방과 함께 각 시설의 시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후활용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후활용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한편, 체육시설 개방은 시가 민선6기 들어 시민 세금으로 건립된 체육시설을 원래 주인인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정 방침에 따라 지난해 9월 월드컵경기장, 무등야구장 등 4개 시설을 개방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U대회 경기장 중 남부대국제수영장은 지난 8월 시민에게 개방한 데 이어 이달 중순부터 재개장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U대회 경기 시설을 많이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나머지 공공체육시설도 최대한 시민에게 개방해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구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서브 코트 14개 면·주변 시설  
오전 6시~밤 10시30분까지



## 광주시 주요 정책 모든 자료 공개한다

### 전국 첫 정책이력제 조례 제정...내년 1월 시행

앞으로 광주시 주요 정책의 입안부터 종료때까지 해당 사업의 관련 자료가 모두 공개된다.  
1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김보현(서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가 이날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주요 정책 입안에 능수축산물 이력제와 같이 누가 입안하고 결정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최종 시행됐는 지 전 과정을 공개한다.  
정책이력제는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정책실명제를 대폭 보완한 진일

보한 조례로 평가된다.  
이같은 조례 제정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공개 대상은 ▲시민 다수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정책 ▲50억원 이상 공사 ▲1억원 이상의 용역(학술용역 5000만원 이상) ▲다수의 시민과 관련한 자치법규제·개정 공공갈등이 유발되거나 우려되는 정책 ▲5억원 이상의 행사 등이다.  
공개 범위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 등 정책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소속과 직위에서 정책 과정에 관련된 다른 기관 및 민간인의 소속, 성명, 역할 등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김치 장인 모십니다”

### 광주세계김치축제위원회, 경연 참가자 모집



광주세계김치축제위원회(위원장 남성우)는 오는 10월24일부터 28일까지 김치타운에서 열리는 제22회 광주세계김치축제에서 펼쳐질 4개 부문 경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한국 음식문화의 상징인 김치의 전통을 계승하고 다양한

김치를 발굴,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 경연 부문을 ▲김치명인 ▲김치요리 ▲전통시장 맛김치 ▲외국인 김치 챔피언전 등 4개로 대폭 확대했다.  
기존 경연은 김치명인과 어린이를 위한 김치요리로 2개 부문이었다.  
이 가운데 김치명인 부문은 포기 배추김치를 담그는 지정종목과 자유종목으로 나눠 진행했지만, 자유종목에서도 포기 배추김치를 담그는 참가자가 많아 올해는 자유종목에서 포기배추김치를 제외했다.  
경연은 김치명인 부문은 막 담근 김치와 숙성김치를 모두 평가하기 위해 1차 10월5일과 2차10월26일로 나눠 총 2회 실시하고, 김치요리는 10월25일, 전통시장 맛김치는 10월25일, 외국인 김치챔피언전은 10월27일 각 1회 실시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치축제 홈페이지(http://kimchi.gwangju.go.kr)를 참조하거나 김치축제 사무국(062-613-82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사랑 넘치는 '공부방 꾸며주기'

### 북구청 사업, 후원자 성금 잇따라

광주 북구청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희망공간 공부방 꾸며주기' 사업에 지원을 원하는 후원자들이 몰리고 있다.  
(유)와이지개발(대표 김인수)은 회사 광고 모델이었던 배우 강현정씨와 함께 최근 북구청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공부방을 꾸며달라며 후원금을 전달했다.  
북구는 후원금을 모아 저소득층 130여 가구의 공부방을 꾸미는 등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구는 우선 학생들에게 필요한 책상과 의자·책장 등을 바꿔주고 있다.  
지금까지 '희망공간 공부방 꾸며주기' 사업에는 '조그만 정성이나마 보태달라'는 사연과 보내온 30만원 등 소액 후원금에서 200만원 규모의 기부금 등 다양한 정성들이 답지하고 있다.  
송광은 북구청장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공부방 꾸며주기 사업에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지역 우수제품 사고 공연도 즐기고

### 광주시·전남도 내일까지 수완 호수공원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광주시와 전남도는 11일부터 이틀간 광주시 수완 호수공원에서 '광주·전남 공동 사회적경제 나눔장터'를 운영한다.  
올해 세 번째 열리는 이번 장터는 광주는 물론 전남 지역의 우수 사회적경제제품도 선보인다.  
또한 한가위를 준비하는 시민들의 수

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남도 사회적경제 기업과 공동 추진해 명절 선물용품을 포함한 다양하고 우수한 사회적경제제품을 준비했다. 행사 중에는 공예품 만들기, 뉴스포츠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전자바이올린, 성악, 방송댄스, 색소폰 연주 등 광주·전남지역 사회적경제 공연단체의 공연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나눔장터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회를 거듭하면서 시민의 요구와 눈높이를 맞춰갈 것이다."라며 "어려운 이웃의 고용과 사회서비스 실현에 앞장서는 착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7층 상가 건물 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 ✓ 1층 (커피숍 입점완료)
- ✓ 2~5층 (사우나, 주택)
- ✓ 6~7층 (설계사, 건설사)

월수익 **95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1,800만

매가 14억 5천 (보 2억, 융 6억)

010-7384-7800 / 010-6670-9800